

제 1 교시

언어 영역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 (물음) 방송의 내용을 들려주기에 가장 적절한 친구는? [1점]

- ① 매사에 끼어들기 좋아하는 친구
- ②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는 친구
- ③ 상황에 따라 수시로 마음이 변하는 친구
- ④ 기본을 다지지 않고 일을 진행하는 친구
- ⑤ 유년 시절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친구

2. (물음) 이 프레젠테이션을 수정, 보완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p>(가)</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1. 파스텔화의 기원</p> <p>1) 화가</p> <p>2) 재료</p> </div>	<p>(나)</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2. 효과와 표현 기법</p>  <p>「퐁파두르 부인」</p> </div>
<p>(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3. 파스텔을 사용한 화가들</p> <p>1) 밀레</p> <p>2) 드가</p> </div>	<p>(라)</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4. 유의 사항</p> <p>1) 그리는 중</p> <p>2) 그린 후</p> <p>- 정착액 뿌리기</p> </div>

- ① (가) 화면의 '1'에 관련 화가들의 이름을 하위 항목으로 제시하면 좋겠어.
- ② (나)를 설명할 때 종이, 슝 외에 파스텔의 느낌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다른 도구도 설명하면 좋겠어.
- ③ (다)를 설명할 때 밀레와 드가가 파스텔을 사용한 이유를 밝히면 좋겠어.
- ④ (라)를 설명할 때 '그리는 중'의 유의 사항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면 좋겠어.
- ⑤ 주제를 계속 환기할 수 있게 (가)~(라) 화면의 상단에 '파스텔화의 이해'라는 제목을 표시하면 좋겠어.

3. (물음) 강연을 듣고 해결할 수 있는 의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감전되었을 때 특히 위험한 신체 부위는 어디일까?
- ② 감전 시 전압이 몇 볼트나 되어야 우리 몸이 피해를 입을까?
- ③ 정전기로 심각한 부상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 ④ 젖은 손으로 전기 제품을 만지면 위험한 이유는 무엇일까?
- ⑤ 9볼트 건전지를 허에 대면 찌릿함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

[4~5]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4. (물음) '우리 팀'의 홈페이지에 두 학생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문구를 넣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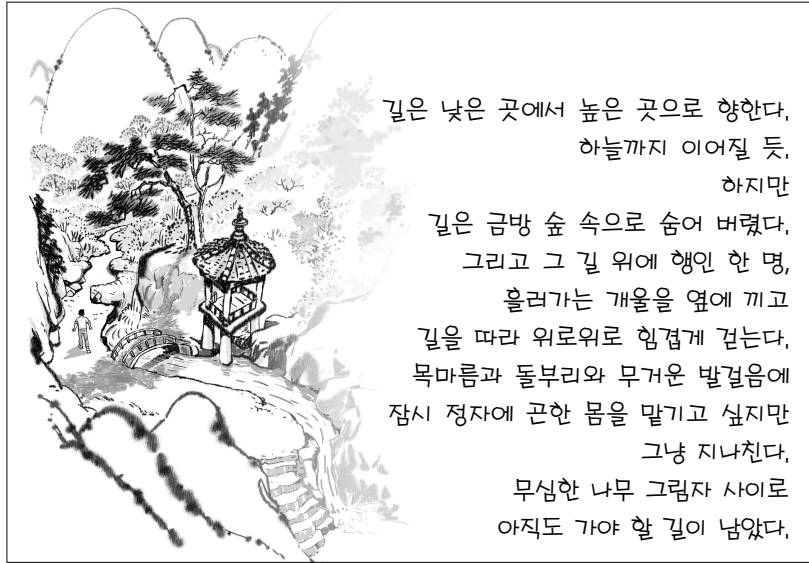
- ① 최선의 공격은 최선의 방어!
- ② 팬을 위한, 팬에 의한, 팬의 축구!
- ③ 축구에는 인생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
- ④ 감독의 전술은 팀의 승패로 직결됩니다.
- ⑤ 우리는 오직 이기기 위해 경기장에 간다.

5. (물음) 두 사람의 대화에 나타난 말하기 방식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상대방의 주장 일부를 확대 해석해 논점을 흐리고 있다.
- ② 상대방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며 보충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 ③ 상대방의 주장을 간추리면서 서로 간의 견해 차이를 좁히고 있다.
- ④ 상대방의 주장에 부분적으로 동의하면서 자기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상대방의 주장이 지닌 모순을 비판하며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제 듣기 문제가 끝났습니다. 6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

6. 다음 그림 에세이를 보고 <보기>의 내용을 이끌어 낸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지금도 힘겹게 자신과 싸우고 있는 친구들과 이 그림 에세이를 함께 보고 싶다. 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상황, ② 당장은 보이지 않는 우리네 삶의 목표, ③ 그래도 꿈이 있기에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한다. ④ 목표를 잃은 젊음은 다시 돌아오지 않기에, ⑤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은 유혹도 이겨 내려 한다.

7. 다음 공모에서 요구한 표현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것은?

- 공 모 -

아직도 연주회장에서 휴대 전화의 벨 소리가 울려 연주와 감상을 방해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 예술 회관에서는 연주회장 입구에 게시할 문구를 공모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문구에는 휴대 전화의 벨 소리와 연주회의 음악을 대비하고, 다른 관객과 함께하고 있다는 점을 환기하는 표현이 들어가야 합니다. 휴대 전화를 끄도록 요청하는 표현도 포함해 주십시오.

- ① 전화로 나누는 대화는 이제 그만입니다. 연주회장에서는 음악만으로도 충분히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 ② 기계의 울림보다 악기의 울림이 더 아름답습니다. 바쁜 일상 일지라도 잠시 여유를 갖고 감상하는 음악이 더 아름답습니다.
- ③ 당황스러운 벨 소리보다 이웃과 공감하며 듣는 음악이 더 소중한입니다. 잠시 휴대 전화를 재워 두실 때 우리의 연주회는 아름답게 빛납니다.
- ④ 마음을 울리는 선율은 주머니 속이 아니라 무대 위에 있습니다. 휴대 전화의 전원을 내려 두는 작은 실천이 음악의 감흥을 더 크게 자아냅니다.
- ⑤ 관객들은 벨 소리와 음악 소리의 부조화가 아니라 음악과 갈채의 조화를 즐기기 위해 연주회장을 찾았습니다. 당신도 그런 관객 중의 한 사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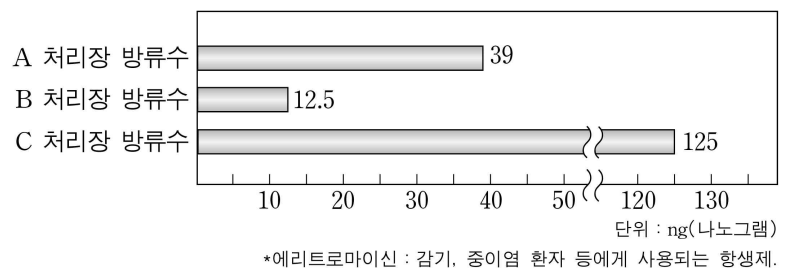
8. '가정에서 버리는 폐의약품의 처리'에 관한 글을 쓰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가)~(다)를 통해 글감을 이끌어 낸 뒤 관련 자료를 더 찾으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신문 기사 자료

○ 안 모 씨(45세)의 집에는 70여 가지 약이 쌓여 있었다. 안 씨 집에서 사용 기한이 지났거나 정체불명인 약들을 모두 수거하니 5리터가 넘었다. 안 씨는 오래된 약들을 처리할 때 보통 쓰레기통이나 개수대에 버린다고 한다. 의약품은 그냥 버리면 안 되지만, 약 포장지에도 처리 방법이 나와 있지 않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잘 모른다고 했다.
- ○○ 신문, 2009년 6월 ○일 -

(나) 보고서 자료

○○강 방류수에서의 항생제(에리트로마이신) 검출 결과



- ○○ 연구소, 2009년 6월 -

(다) 인터뷰 자료

○ 폐의약품에 오염된 물을 장기간 섭취했을 때 건강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 ○○ 대학교 송○○ 교수 -

○ 폐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환경부는 '폐의약품 수거 시범 사업'을 벌여 3개월 동안 7톤 가량의 폐의약품을 수거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쓰고 남았거나 사용 기한이 지난 약은 약국으로 돌려주라는 문구를 포장지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 약사회 허○○ 실장 -

- ① (가)와 (나)를 통해, 가정에서 버리는 의약품 중 일부가 강물을 오염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음을 확인하고, 주택 밀집 지역과 다른 지역의 하수 처리장에서 검출된 항생제 농도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본다.
- ② (가)와 (다)를 통해, 우리나라와는 달리 약품의 포장지에 폐의약품 회수 정보를 안내하도록 한 유럽의 사례를 확인하고, 제도 시행 후에 나타난 효과를 분석한 자료를 찾아본다.
- ③ (가)와 (다)를 통해, 가정에서 적절한 처리 방법을 몰라 임의로 폐의약품을 버리고 있는 상황을 확인하고, '폐의약품 수거 시범 사업'의 후속 조치에 관한 자료를 찾아본다.
- ④ (나)와 (다)를 통해, 강물에서 검출된 항생제가 자연에 미치는 부작용의 결과를 확인하고, 항생제의 처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자료를 찾아본다.
- ⑤ (나)와 (다)를 통해, 폐의약품에 오염된 강물이 인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하수 처리장에서 폐의약품을 어떻게 정화하고 있는지 조사한 자료를 찾아본다.

[9~10] '온라인 환경에서의 독서 문화'에 관한 공동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두 학생이 개요 (가)와 (나)를 따로 만든 후, 이를 발전시켜 개요 (다)를 작성하였다. 9번과 10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온라인 환경에서의 독서 문화

<p>(가)</p> <p>I. 서론 - 온라인 독서 문화의 확산</p> <p>II. 본론</p> <p>1. 독서 모임의 확산</p> <p>2. 독자와 저자의 대화 활성화</p> <p>3. 도서 정보 활용의 증대</p> <p>III. 결론 - 온라인 독서 방법의 개발</p>	<p>(나)</p> <p>I. 현황</p> <p>1. '대충 읽기'식 독서 확산</p> <p>2. 타인과 교류하지 않는 '나홀로 독서' 만연</p> <p>3. 도서 정보의 상업적 이용</p> <p>4. 지역 중소 서점의 경영 악화</p> <p>II. 과제</p> <p>1. 중소 서점 보호 정책 수립</p> <p>2.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 운영</p>
--	--



(다)

I. 서론

II. 현황

1. 온라인 서점을 통한 도서 구입 증가

2. 독자와 독자, 독자와 저자 간의 소통 확대㉠

3. 데이터베이스화된 도서 정보의 이용 증대㉡

4. 전자 도서 이용자 증가㉢

III. 과제

1. 바람직한 온라인 독서 방법의 개발과 교육㉣

2. 지역 중소 서점과 도서관 활성화를 통한 오프라인 독서 진흥책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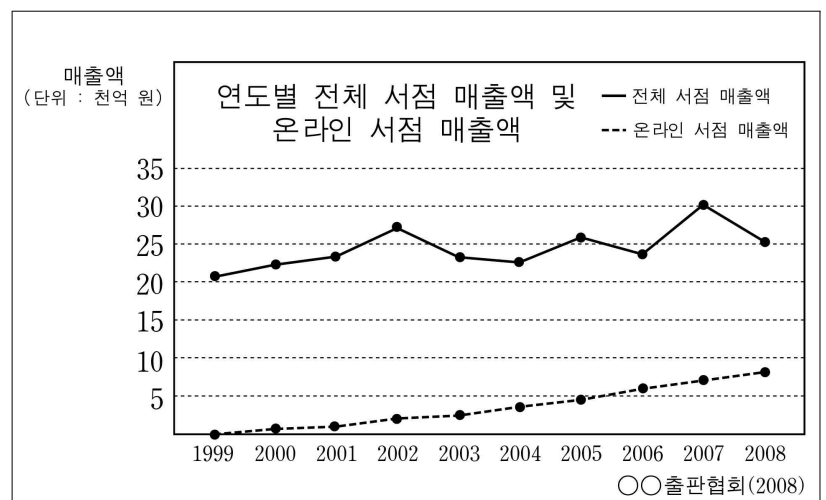
IV. 결론

9. (가)와 (나)를 통합하기 위해 세운 전략 중, ㉠~㉤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3점]

- ① ㉠: (가)의 '본론'과 (나)의 '현황'에서 서로 배치되는 내용 중, 논지의 일관성을 위해 한쪽을 선택하여 기술한다.
- ② ㉡: (가)의 '본론'과 (나)의 '현황'에서 같은 현상에 대해 다르게 평가한 내용의 차이점을 부각한다.
- ③ ㉢: (가)의 '본론'과 (나)의 '현황'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이라도, 필요하면 새로 추가하여 내용을 보강한다.

- ④ ㉣: (나)의 '현황'에서 지적한 문제의 일부에 대해 (가)의 '결론'을 활용하여 해결책을 제시한다.
- ⑤ ㉤: (나)의 '과제'에서만 언급하고 (가)에는 없는 내용이라도, 필요하면 발전시켜 과제로 포함한다.

10. 다음은 개요 (다)의 'II-1'을 구체화한 초고이다. 고쳐 쓰기 위해 검토한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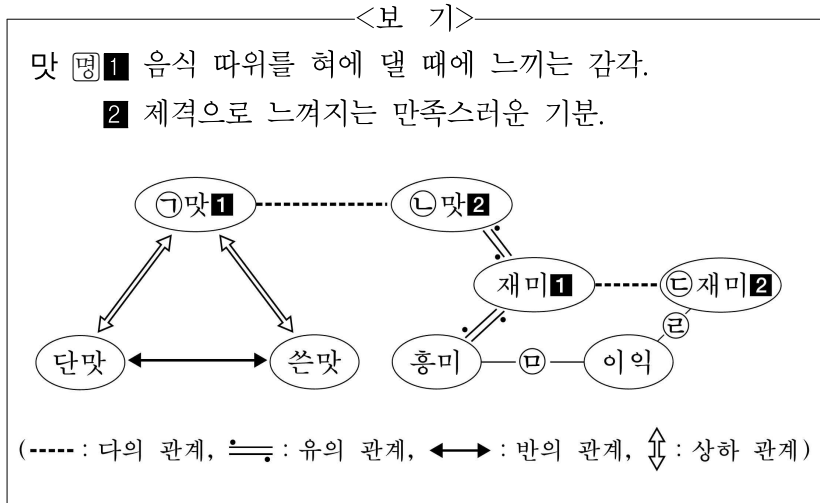


국내에서 온라인 서점이 처음 문을 연 해는 1999년이다.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온라인 서점의 2008년 매출액은 전체 서점 매출액의 34%에 이른다. ㉠ 판매한 책을 한 줄로 늘어놓으면 백두산과 한라산을 27번이나 왕복할 수 있다고 한다. ㉡ 전체 서점의 매출액은 매해 증가해 왔으며, 온라인 서점의 매출액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서점이 급성장한 가장 큰 이유는 독자들이 편리하게 책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마우스 클릭 한 번이면 굳이 힘들게 서점까지 나가지 않아도 안방에서 책을 받아 볼 수 있다. 오프라인 서점보다 책값이 저렴한 것도 또 하나의 이유이다. 이 때문에 독자들은 ㉣ 인터넷 서점으로 몰려들었다. ㉤ 또한 전자 도서를 이용하는 독자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산업도 함께 발달하고 있다.

- ① ㉠: '판매한 책'의 양이 누적 판매량인지 한 해 동안의 판매량인지 독자가 모를 수 있으므로, 자료를 확인하여 분명하게 한다.
- ② ㉡: 그래프와 글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그래프를 확인하여 글의 내용을 수정한다.
- ③ ㉢: 내용 연결이 어색하므로, 앞뒤의 문맥을 고려하여 바로 뒷문장과 위치를 맞바꾼다.
- ④ ㉣: 하나의 글 안에서 용어를 다르게 쓰고 있으므로, 문맥을 고려하여 하나로 통일한다.
- ⑤ ㉤: 개요 (다)의 'II-1'에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므로, 이 내용을 다루어야 할 곳으로 옮긴다.

11. <보기>는 국어사전을 토대로 ‘맛’과 관련된 어휘 사이의 의미 관계를 그려 본 것이다.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여행을 꼭 해외로 가야만 맛인가?”의 ‘맛’은 ㉠과 동의 관계이다.
- ② “음식에 설탕을 넣어 단맛을 내다.”의 ‘단맛’은 ㉠의 하의어이고, ‘단맛’과 반의 관계인 ‘쓴맛’도 ㉠의 하의어이다.
- ③ “내가 어제 본 만화는 정말 재미가 있었어.”의 ‘재미’가 ㉡과 유의 관계라면, ㉠과는 동의 관계가 된다.
- ④ “시제가 올라 이익을 본 상인이 많다.”의 ‘이익’이 ㉡과 유의 관계라면, ㉡의 표시는 ‘느’가 알맞다.
- ⑤ “소설의 결말을 알면 흥미가 반감된다.”의 ‘흥미’와 ‘이익’ 사이에서는 <보기>에 제시된 의미 관계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은 주어진 부호로는 표시할 수 없다.

12. <보기>를 통해 감탄사의 특성을 파악하는 활동을 해 보았다. 다음 설명 중 적절한 것은?

<보 기>

아 들: 아버지, 저도 바둑을 배워서 명인이 되고 싶어요.
 아버지: ㉠ 뿔, 명인이 된다고?
 아 들: ㉡ 예, 그러니까 바둑판 하나 사 주세요.
 아버지: ㉢ 글쎄, 사 줘야 되나?
 아 들: 사 주세요, ㉣ 예?
 아버지: 얼마 전에 농구 선수가 되겠다고 해서 농구공을 사 줬더니 작심삼일이었잖아. 이번에도 호지부지할 거지?
 아 들: 그런데, ㉤ 음, 작심삼일이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 그건 결심이 사흘을 가지 못한다는 말인데, 이번에도 그러는 거 아니냐고.
 아 들: ㉥ 아니요, 이번에는 다를 거예요.
 아버지: 명인이 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
 아 들: ㉦ 글쎄요, 잘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해 볼게요.

- ① ㉠은 더 이상 여러 말 할 것 없다는 뜻으로 하는 말이겠군.
- ② ㉡은 긍정하여 대답하는 의미로, ㉣은 상대방을 의식하지 않고 놀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군.
- ③ ㉢이 ㉦처럼 나타나는 것을 보면, 감탄사도 상대에 따라 다른 형태로 쓰일 수 있군.

- ④ ㉡이 문장의 중간에 쓰인 것을 보면 독립어의 기능을 할 수 없겠군.
- ⑤ ㉤은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의 ‘아니’와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이겠군.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처마 끝에 서린 연기 따라
 포도순이 기어 나가는 밤, 소리 없이,
 가물음 땅에 시며든 더운 김이
 등에 서리나니, 훈훈히,
 아아, 이 애 몸이 또 달아 오르노나.
 가쁜 숨결을 드내쉬노니, 박나비*처럼,
 가녀린 머리, 주사* 짙은 자리에, 입술을 붙이고
 나는 중얼거리다, 나는 중얼거리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다신교도(多神教徒)와도 같이.
 아아, 이 애가 애자지게 보채노나!
 불도 약도 달도 없는 밤,
 아득한 하늘에는
 별들이 참벌 날으듯 하여라.

[A]
 [B]
 [C]

- 정지용, 「발열(發熱)」 -

* 박나비: 흰제비불나방. 몸이 흰색이고 배에는 붉은 줄무늬가 있음.
 * 주사(朱砂): 짙은 붉은색의 광물질로, 한방에서 열을 내리는 데 사용하였음.

(나) 검은 벽에 기대선 채로
 해가 스무 번 바뀌었는디
 내 기린(麒麟)*은 영영 울지를 못한다

그 가슴을 통 흔들고 간 노인의 손
 지금 어느 끝없는 향연(饗宴)에 높이 앉았으려니
 땅 위의 외론 기린이야 하마 잊어졌을라

바깥은 거친 들 이리때만 몰려다니고
 사람인 양 꾸민 잔나비떼들 쪼다다니어
 내 기린은 맘들 곳 몸들 곳 없어지다

문 아주 굳이 닫고 벽에 기대선 채
 해가 또 한 번 바뀌거늘
 이 밤도 내 기린은 맘 놓고 울들 못한다

[D]

- 김영랑, 「거문고」 -

* 기린: 성인이 이 세상에 나올 징조로 나타난다는 상상 속의 동물.

(다) 해일처럼 굽이치는 백색의 산들,
 제설차 한 대 울 리 없는
 깊은 백색의 골짜기를 메우며
 굵은 눈발은 휘몰아치고,
 쪼그마한 숲덩이만한 게 짧은 날개를 파닥이며……
 굴뚝새가 눈보라 속으로 날아간다.

길 잃은 등산객들 있을 듯
 외딴 두메마을 길 끊어 놓을 듯
 은하수가 펄펄 쏟아져 날아오듯 덩벼드는 눈,
 다투어 몰려오는 힘찬 눈보라의 군단,
 눈보라가 내리는 백색의 계엄령.

쫄고마한 솟덩이만한 게 짧은 날개를 파닥이며……
 날아온다 꺼칠한 굴뚝새가
 서둘러 뒷간에 몸을 감춘다.
 그 어디에 부리부리한 솔개라도 도사리고 있다는 것일까.
 길 잃고 굶주리는 산짐승들 있을 듯
 눈더미의 무게로 소나무 가지들이 부러질 듯
 다투어 몰려오는 힘찬 눈보라의 군단,
 때죽나무와 때 끊이는 외딴집 굴뚝에
 해일처럼 굽이치는 백색의 산과 골짜기에
 눈보라가 내리는
 백색의 계엄령.

[E]

- 최승호, 「대설주의보」 -

13. (가)~(다)의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 (나)는 동일한 시행을 반복하여 운율감을 느끼게 한다.
- ② (가), (다)는 명사로 끝맺은 시행을 반복하여 시적인 여운을 준다.
- ③ (나), (다)는 의인화된 사물을 등장시켜 독자에게 친근감을 느끼게 한다.
- ④ (가), (나), (다)는 어순의 도치를 통해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 (나), (다)는 대상의 현재 상황을 부각하여 시적 정서를 형성하고 있다.

14. 다음은 (가)를 영상시로 제작하기 위한 계획서이다. 이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메라의 위치와 움직임은 화자의 시선 이동에 따른다. • 낭송, 영상 및 음향 효과는 시의 내용과 표현에 따른다.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ㄱ. 카메라 시선을 위쪽부터 아래로 천천히 내림. ㄴ. 화면을 점차 뿌옇게 처리.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ㄷ. 붉은색이 두드러지는 영상과 가쁜 호흡의 음향 사용. ㄹ. 클로즈업 기법 활용. ㅁ. 5행과 10행은 영탄적 어조로 낭송.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ㅂ. 카메라 시선을 밤하늘 쪽으로 옮겨 원경으로 담아 냄. ㅅ. 빛이 흩어지는 느낌이 들도록 영상 효과를 줌.

- ① ㄱ, ㄴ은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와 시간을 제시하고 작품 초반부의 분위기를 자아내는 데 효과적이겠군.
- ② ㄷ은 안타까운 상황과 분위기를 전달하고 ‘애’가 겪는 고통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 ③ ㄹ로 ‘애’의 모습을 담으면 감상자의 공감을 이끌어 내는 데 도움이 되겠군.
- ④ ㅁ은 화자의 간절한 심정과 내면 심리를 엿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어.
- ⑤ ㅂ, ㅅ은 의식이 혼미해진 ‘애’의 상태를 보여 주는 데 효과적일 것 같아.

15. <보기>의 설명을 듣고, 학생들이 (나)와 (다)에 대해 보일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김 선생님 : 순수 서정 시인 김영랑은 1930년대 후반에 이르러 더 이상 마음속 울림을 맑은 가락으로 빚어낸 시를 쓸 수 없었어요. 모국어로 시를 쓰는 것 자체가 어려워기 때문이지요. 「거문고」는 이런 현실을 우의적 표현으로 비판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비슷한 맥락에서 1980년대 초반 많은 독자들의 호응을 얻은 「대설주의보」를 읽어 보지요. 이 작품은 새로운 권력 집단이 등장해서 강압 통치를 했던 시대와 관련이 깊습니다.

- ① (나)와 (다) 모두 생각의 표현이 자유롭지 못했던 시기에 창작되었어.
- ② (나)와 (다) 모두 고난 극복 의지와 미래에 대한 전망이 나타나지 않아.
- ③ (나)의 ‘울지를 못한다’와 (다)의 ‘내리는’은 모두 중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어.
- ④ (나)의 ‘기린’은 ‘노인’에게, (다)의 ‘굴뚝새’는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당한 존재야.
- ⑤ (나)의 ‘이리떼’와 ‘잔나비떼’처럼, (다)의 ‘솔개’는 부당한 권력을 암시하는 소재야.

16. [D]와 [E]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D]와 [E]는 자아 성찰을 위한 내면의 공간이 나타난다.
- ② [D]와 [E]는 화자의 심리적 갈등이 해소되는 계기를 보여 준다.
- ③ [D]와 [E]는 표면에 드러난 화자가 대상을 관찰하여 묘사한다.
- ④ [D]에는 화자와 대상의 거리감이, [E]에는 화자와 대상의 일체감이 나타난다.
- ⑤ [D]에는 화자가 선택한 은거의 공간이, [E]에는 생명이 위협받는 고립의 공간이 암시된다.

[17~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언어학에서는 지리학의 방법을 활용하여 언어 현상을 설명하기도 하는데, 그 예로 언어 지도가 있다. 언어 지도는 일정 지역의 언어적인 차이를 한눈에 알아보도록 지도 형식을 빌려 표시한 것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언어를 공간적으로 투영한 것이다. 이것은 ㉠ 동일한 의미를 지닌 단어가 지역에 따라 형태가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가, ㉡ 동일한 형태의 한 단어가 지역에 따라 의미가 어떻게 분화되는가 등을 시각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보여 준다.

언어 지도는 현재 언어 상태의 생생한 모습을 보여 주고, 국어의 역사적인 변화에 관한 정보를 드러내 주며, 해당 지역의 역사나 문화를 반영하여 민속학적, 문화사적 연구에 도움을 준다. 또 지도에 담긴 방언형을 통해 이전 시기의 언어를 재구성하거나, 문학 작품에 나타난 방언 어휘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언어 지도는 자료를 기입해 넣는 방식에 따라 몇 가지로 나누는데, 그 중 한 분류법이 진열 지도와 해석 지도로 나누는 방식이다. 전자가 원자료를 해당 지점에 직접 기록하는 기초 지도라면, 후자는 원자료를 언어학적 관점에 따라 분석, 가공하여 지역적인 분포 상태를 제시하고 설명하는 지도를 말한다.

진열 지도는 각 지점에 해당하는 방언형을 지도에 직접 표시하거나 적절한 부호로 표시하는데, 언어학적으로 비슷한 어형은 비슷한 모양의 부호를 사용한다. 가령 '누룽지'의 방언형으로 '누렁기, 누룽지, 소데끼, 소디끼' 등이 있다면, '누렁기, 누룽지'와 '소데끼, 소디끼'를 각각 비슷한 부호로 사용하는 것이다. 한편, 해석 지도는 방언형이 많지 않을 때 주로 이용하며, 연속된 지점에 동일한 방언형이 계속 나타나면 등어선(等語線)을 그어 표시한다. 등어선은 언어의 어떤 특징과 관련되느냐에 따라 그 굵기에 차이를 두어 표시하기도 한다. 이때 지역적으로 드물게 나타나는 이질적인 방언형은 종종 무시되기도 한다.

17. 위 글을 통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언어 지도를 보면 김소월 시에 있는 토속적 어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 ② 언어 지도를 이용하면 문헌을 통한 통시적 연구에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
 - ③ 언어 지도를 통해 성별이나 세대 차의 요인에 따라 나타나는 방언형을 알아볼 수 있다.
 - ④ 여러 방언형 중 하나를 표준어로 정할 때, 방언형의 분포를 보여 주는 지도를 활용할 수 있다.
 - ⑤ 언어 지도를 만들기 위한 조사 대상자로는 외지 경험이 적은 순수한 토박이 화자가 적합하다.

18. ㉠, ㉡에 해당하는 예를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보 기>

a. '박쥐'를 어떤 지역은 '빨쥐', 어떤 지역은 '뽕쥐'라고 하는군.
 b. '아버지의 남동생'을 뜻하는 '아재'가 우리 지역에서는 '고모'나 '이모'를 뜻해.
 c. 언어 지도 '부추' 항목을 찾아보니, '술, 줄, 정구지' 등의 어형이 나타나는군.
 d. '진달래'를 우리 아버지는 '참꽃'이라고 하시는데, 다른 지역에서 이사 온 이웃 할아버지는 '연달래'라고 하셔.

- | | |
|-----------|---------|
| ㉠ | ㉡ |
| ① a, c, d | b |
| ② b, d | a, c |
| ③ b, c | a, d |
| ④ a, c | b, d |
| ⑤ a | b, c, d |

19. 표준어 '노을'로 <보기>와 같은 가상의 언어 지도를 만들어 보았다. 위 글과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노을'의 방언형

노을 □	노으리 ◻
나불 ◇	나부리 ◊
북새 ☆	

<지도 A>

<지도 B>

* 점선은 임의의 행정 구역을 표시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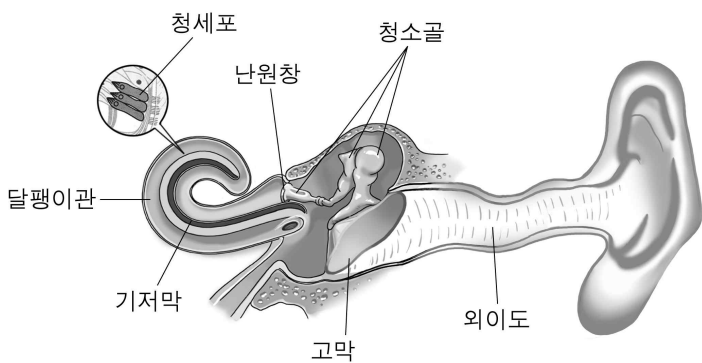
- ① '노을'과 '노으리'가 형태적으로 유사하니까 비슷한 형태의 부호 □, ◻를 사용한 것이로군.
- ② '북새'의 부호 ☆가 □, ◇와 유사성이 없는 것은 단어의 의미 차이를 반영한 것이로군.
- ③ 지도 A에서는 특정 지점의 방언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겠군.
- ④ 지도 B를 만들 때 방언형이 같은 여러 지점을 묶어서 등어선을 표시했군.
- ⑤ 지도 A에 표시된 이질적인 방언형이 지도 B에서 표시되지 않은 것을 보니 지도 B에는 지도 편집자의 해석이 들어갔군.

[20~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일반적인 청력 검사는 검사 받는 사람의 협조가 없으면 시행하기 힘들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 ‘귀의 소리(otoacoustic emissions)’를 활용하는 기술이 있다. 이 기술은 1978년 데이비드 켈프에 의해 귀에서 소리를 방출한다는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면서 발달하였다.

특정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의식적인 행동은 생리학적으로 내이(內耳)의 달팽이관 안에 있는 청세포의 역할로 설명할 수 있다. 포유동물의 청세포는 외부의 소리를 감지하는 역할을 하면서, 수축과 이완을 통해 특정 음파의 소리에 대한 민감도를 증가시키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귀의 소리’가 발생하는데 ㉠ 이는 청세포가 능동적으로 내는 소리이다. 과거에는 ‘귀의 소리’를 외부 소리에 대한 ‘달팽이관의 메아리’로 여겼다. 하지만 주어진 외부 자극 소리로 발생하는 메아리보다 음압이 더 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귀의 소리’를 단순한 메아리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오른쪽 귀에만 외부 소리 자극을 가했는데 왼쪽 귀에서도 ‘귀의 소리’가 발생한다는 점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귀의 소리’는 청세포에서 발생하여 기저막을 따라 난원창으로, 다시 청소골을 통해 고막과 외이도로 전달된다. 이 소리는 두 종류의 외부 소리를 이용하여 청세포를 자극한 후 특정한 주파수 대역에서 측정할 수 있다. 소리 자극으로는 여러 주파수가 섞인 복합음이나 두 주파수(f_1 과 f_2 , $f_1 < f_2$)만으로 이루어진 조합음을 이용한다. 전자에서 발생하는 ‘귀의 소리’는 4 kHz 이하의 주파수 대역에서 측정되는데, 그 소리는 개인마다 차이를 보이지만 개인별로는 일정한 패턴을 유지한다. 후자에서 발생하는 ‘귀의 소리’는 수학적으로 계산되는 여러 주파수 대역에서 측정되며, 특정 주파수 대역($f_x = 2f_1 - f_2$, $x = \text{최대}$ ‘귀의 소리’)에서 가장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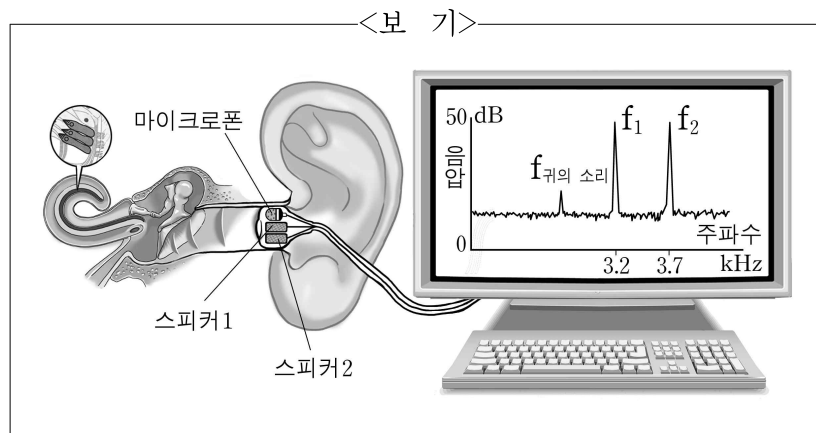
청세포는 작업장의 소음과 같은 특정 주파수나 약물 등에 반복 노출되면 손상될 수 있다. 청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하면, 청력 손실이 일어나고 ‘귀의 소리’도 감소한다. 청세포 손상이 진행되어 30 dB 이상의 청력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귀의 소리’도 사라진다.

‘귀의 소리’는 조용한 환경에서 마이크로폰을 외이도에 장착하여 측정한다. ㉡ ‘귀의 소리’ 측정 기술을 활용하면 검사 받는 사람의 협조 없이도 청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기술은 몇몇 국가에서 신생아의 청력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선별 검사에 이용되고 있다.

20. ㉠과 같이 말할 수 있는 근거로 적절한 것은?

- ① 외부에서 소리 자극을 가했을 때 귀에서 소리가 측정된다.
- ② 한쪽 귀에 외부 소리 자극을 가했을 때 반대쪽 귀에서도 ‘귀의 소리’가 발생한다.
- ③ ‘귀의 소리’는 청세포에서 기저막을 따라 난원창으로, 다시 청소골을 통해 고막과 외이도로 전달된다.
- ④ ‘귀의 소리’는 다양한 주파수 대역에서 측정된다.
- ⑤ ‘귀의 소리’는 개인마다 차이를 보이지만, 개인별로는 일정한 패턴을 유지한다.

21. <보기>는 두 주파수의 조합음을 이용하여 ‘귀의 소리’를 측정하는 장치를 그린 그림이다.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귀의 소리’는 f_1 , f_2 자극 소리보다 빨리 감지될 것이다.
- ② 외이도가 막혔을 경우 ‘귀의 소리’ 측정이 어려울 수 있다.
- ③ 마이크로폰을 통해서 감지되는 소리는 자극 소리, 메아리 소리, ‘귀의 소리’이다.
- ④ f_1 이 3.2kHz, f_2 가 3.7kHz일 때 발생하는 ‘귀의 소리’의 음압은 2.7 kHz에서 가장 크다.
- ⑤ 스피커를 통하여 두 주파수의 소리 자극을 가하고, 마이크로폰을 통하여 감지되는 소리를 측정한다.

22. ㉡을 활용할 수 있는 사례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쥐를 이용한 실험에서 청력 측정을 할 경우
- ② 일부러 안 들리는 척하는 사람을 찾아내려 할 경우
- ③ 청력 측정을 통해 개인을 식별하는 기계를 만들 경우
- ④ 소음성 난청이 있는 사람의 청세포 손상 여부를 판단할 경우
- ⑤ 청세포가 파괴되어 인공 달팽이관 이식을 받은 사람의 청력을 평가할 경우

[23~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학교에 나가지 않으면 나는 5시에 ㉠컨베이어 앞을 떠날 수 없을 것이다. 선생님은 버스 정류장에서 내일은 꼭 학교에 나오라고 한다.

“우선 학교에 나와서 얘기하자.”

버스에 올라탄 선생님이 나를 향해 손을 흔든다. 선생님의 손 뒤로 공장 굴뚝이 울퉁울퉁하다. 처음으로 공장 속에서 사람을 만난 것 같다. 버스가 떠난 자리에 열일곱의 나, 우두커니 서 있다. 선생님의 손길이 남아 있는 내 어깨를 내 손으로 만져 보며.

다음날 교무실로 나를 부른 선생님은 내게 반성문을 써 오라 한다.

“하고 싶은 말 다 써서 사흘 후에 가져와 봐.”

㉡반성문을 쓰기 위해 학교 앞 문방구에서 대학 노트를 한 권 산다. 지난날, 노조 지부장에게 왜 외사촌과 내가 학교에 가야만 하는가를 뭐라구 뭐라구 적었듯이 이젠 선생님에게 학교 가기 싫은 이유를 뭐라구 뭐라구 적는데 어느 참에서 마음속의 이야기들이 왈각 쏟아져 나온다. 열일곱의 나, 쓴다. 내가 생각한 도시 생활이란 이런 것이 아니었으며, 내가 생각한 학교 생활도 이런 것이 아니었다고.

나는 주산 농기도 싫고 부기책도 싫으며 지금은 오로지 마음속에 남동생 생각뿐으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서 그 애와 함께 살고 싶다고. 반성문은 노트 삼분의 일은 되게 길어진다.

[A] 반성문을 다 읽은 선생님이 말한다.

“너 소설을 써 보는 게 어떻겠냐?”

내게 떨어진 소설이라는 말. 그때 처음 들었다. 소설을 써 보라는 말.

그는 다시 말한다.

“㉢주산 농기 싫으면 안 놓아도 좋다. 학교에만 나와. 내가 다른 선생들에게 다 말해 놓겠어. 뭘 하든 니가 하고 싶은 걸 하거라. 대신 학교는 빠지지 말아야 돼.”

그는 내게 한 권의 책을 건네준다.

“내가 요즘 최고로 잘 읽은 소설이다.”

표지에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라고 써어 있다.

(중략)

최홍이 선생님. 이후 나는 그 선생님을 보러 학교에 간다. 어색한 이향*으로 마음에 가뒤했던 그리움들이 최홍이 선생님을 향해 방향을 돌린다. 열일곱의 나, 늘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을 가지고 다닌다. 어디서나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을 읽는다. 다 외울 지경이다. 회재언니가 무슨 책이냐고 묻는다.

[B]

“소설책.”

소설책? 한번 반문해 볼 뿐 관심 없다는 듯이 회재언니가 고개 떨군다. 최홍이 선생님이 마음 안으로 가득 들어찬다.

정말 주산을 놓지 않아도 주산 선생님은 그냥 지나간다. 부기 노트에 ㉣대차대조표를 그리지 않아도 부기 선생은 탓하지 않는다.

주산 시간에 국어 노트 뒷장을 펴고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을 옮겨 본다.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쟁이라고 불렀다. 사람들은 옮겨 보았다. 아버지는 난쟁이었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는 것 하나만 옮겼다. 그 밖의 것들은 하나도 옮겨 보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 어머니, 영호, 영희, 그리고 나를 포함한 다섯 식구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이 옮겨 보지 않는 것을 언제나 말할 수 있다. 나의 ‘모든 것’이라는 표현에는 ‘다섯 식구의 목숨’이 포함되어 있다.

[C]

……이제 열일곱의 나는 컨베이어 위에서도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을 옮기고 있다.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나 우리 다섯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고. 단 하루라도 천국을 생각해 보지 않은 날이 없다,고. 하루하루의 생활이 지겨웠기 때문이다,고. 우리의 생활은 전쟁과도 같았다,고.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고. 그런데도 어머니는 모든 것을 잘 참았다,고.

그가 소설책을 써 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말 대신 시를 써 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했으면 나는 시인을 꿈꾸었을 것이다. 그랬었다. 나는 꿈이 필요했었다. 내가 학교에 가기 위해서, 큰 오빠의 가발을 담담하게 빗질하기 위해서, ㉤공장 굴뚝의 연기를 참아 낼 수 있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소설은 그렇게 내게로 왔다.

십이월 중순이 지날 때까지 나는 한경신 선생이 보낸 편지를 가방에 넣고 다녔다. 가끔 편지를 꺼내 전화는 오후 5시 30분 이후부터 9시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대목을 읽어 보곤 했다. 842-xxxx. 몇 번 편지를 꺼내 읽고 다시 넣고 하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전화번호를 다 외우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끝내 전화하지 못했다. 시간은 자꾸 흘러 한경신 선생이 학교에 왔으면 하는 기간인 12월 초와 중순을 지나갔다. 이제는 방학을 했겠구나, 싶었을 때 가방에서 편지를 꺼내 서랍에 넣으면서 그 학교를 떠난 햇수를 헤아려 봤다. 떠난 지 십삼 년이다. 이제는 그때의 일들이 나에게만 객관화가 되어 있으려니 했다.

글을 쓰기로 마음을 먹었을 땐 나는 그 시절을 다 극복한 것도 같았다. 그래서 그 시절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한 자세히 써 보기로 했다. 그때의 기억을 복원시켜 내 말문을 띄워 보고 내 인생의 폐문 앞에서 끊겨 버린 내 발자국을 연결시켜 줘 보기로.

[D]

- 신경숙, 「외딴 방」 -

* 이향: 고향을 떠남.

23. ㉠~㉤에 대한 ‘나’의 심리적 태도가 다른 하나는? [1점]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24. 다음은 작가가 남긴 창작 노트의 일부이다. 이 노트의 내용이 [A], [B]에 실현된 양상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시제의 변화 ㉠
- 문단 나누기의 효과? ㉡
- 간결한 문장 위주로 쓸 것 ㉢
- ‘나’를 부르는 방식에 변화를 줄 것 ㉣
- 대화보다는 심리 묘사 위주로 ㉤

- ① ㉠은 [A]에서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여 이야기 전개 속도를 높이는 식으로 실현되었군.
- ② ㉡는 [A]에서 문단 사이에 여백을 주어 인과 관계를 명료화 하는 식으로 실현되었군.
- ③ ㉢는 [B]에서 간결한 문장을 주로 사용하여 과거를 담담한 어조로 서술하는 식으로 실현되었군.
- ④ ㉣는 [B]에서 서술자가 스스로를 가리키는 방식을 달리하여 내적 분열을 강조하는 식으로 실현되었군.
- ⑤ ㉤는 [B]에서 대화를 최소화하여 사건의 긴장감을 고조하는 식으로 실현되었군.

25. [C]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의 고단한 생활을 간접적으로 보여 준다.
- ② ‘나’가 소설 쓰기를 배워 가는 과정을 보여 준다.
- ③ ‘나’가 창작의 어려움을 깨달아 가는 모습을 보여 준다.
- ④ ‘나’가 소설을 옮겨 적으며 스스로 위안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 ⑤ ‘나’가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에 대해 보이는 애착을 구체적인 장면으로 보여 준다.

26. [D]는 작품 창작의 동기를 작품에 직접 드러내고 있다. <보기>에서 [D]와 성격이 유사한 것은?

< 보 기 >

목중 : 오랜만에 나왔으니 예전에 하던 소리나 한번 해 보자.
어어으 아-

음중 : (뒤에서 달려 나와 탁 치며) 야, 이놈아!

목중 : 이크, 이게 웬 일이냐. 어느 광대 놈이 나오자마자 사람부터 쳐. ①

음중 : 송아지 풀 뜯어 먹고 울 듯이 ‘어어으 아’ 하면서 나왔다니 거 무슨 말이야? ②

목중 : 내가 나오기는 부모 배 밖에 이제 나왔다고 한 것이 아니라 놀이판에 나오길 이제 나왔단 말이야. ③

음중 : 옳지. 그럼 우리 여기 모인 양반들에게 박수 한번 크게 받게 제대로 놀아 보자. ④

목중 : 너 그러나 저러나 그 쓴 게 뭐냐?

음중 : 쓰긴 내가 뭘 써. 일수(日收)를 써 월수(月收)를 써? ... ⑤

- 「양주별산대놀이」 개작 -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조선 전기 조선군의 전술에서는 기병을 동원한 활쏘기와 돌격,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보병의 다양한 화약 병기 및 활의 사격 지원을 중시했다. 이는 여진족이나 왜구와의 전투에 효과적이었는데, 상대가 아직 화약 병기를 갖추지 못한 데다 전투 규모도 작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전술적 우위는 일본군의 조총 공격에 의해 상쇄되었다.

(나) 16세기 중반 일본에 도입된 조총은 다루는 데 특별한 무예나 기술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 결과 신분이 낮은 계층인 조총 무장 보병이 주요한 전투원으로 등장할 수 있었다. 한편 중국의 절강병법은 이러한 일본군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된 전술로, 조총과 함께 다양한 근접전 병기를 갖춘 보병을 편성한 전술이었다. 이 전술은 주력이 천민을 포함한 일반 농민층이었는데, 개인의 기량은 떨어지더라도 각각의 병사를 특성에 따라 편제하고 운용하여 전체의 전투력을 높일 수 있었다. 근접전용 무기도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이용되었다.

(다) 조선군의 전술은 절강병법을 일부 수용하면서 기병 중심에서 보병 중심으로 급속히 전환되었다. 조총병인 포수와 각종 근접전 병기로 무장한 살수에 전통적 기예인 활을 담당하는 사수를 포함시켜 편제한 삼수병 체제에서 보병 중심 전술이 확립되었음을 볼 수 있다. 17세기 중반 이후 조총의 신뢰성과 위력이 높아지면서 삼수 내의 무기 체계의 분포에도 변화가 시작되었다. 상대적으로 사격 기술을 익히기 어렵고 주요 재료를 구하기 어려웠던 활 대신, 조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증가했다.

(라) 조선에서의 새로운 무기 수용과 전술의 변화는 단순한 군사적 변화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 경제적 변화를 수반하였다. 군의 규모는 관노와 사노 등 천민 계층까지 충원되면서 급격히 커졌고,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 백성에 대한 통제도 엄격해졌다. 성인 남성에게 이름과 군역 등이 새겨진 호패를 차게 하였으며, 거주지의 변동이 있을 때마다 관가에 보고하게 하였다. 대규모 군사력의 운용으로 국가 단위의 재정 수요도 크게 증대했는데, 대동법은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는 제도이기도 했다. 선혜청에서 대동법의 운영을 전담하면서 재정권의 중앙 집중화가 시도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방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던 재정의 상당 부분이 조정으로 귀속되었다. 한편 가호(家戶)를 단위로 부과하던 공물을 농지 면적에 따라 쌀이나 무명 등으로 납부하게 하여, 논밭이 없거나 적은 농민들의 부담은 줄어들었다.

27.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일본이 중국이나 조선보다 먼저 조총을 실전에 사용했다.
- ② 조선과 중국에서는 조총을 받아들이면서 전술이 변화되었다.
- ③ 조선이 조총을 도입한 뒤 구성한 보병의 무기 체계는 중국과 달랐다.
- ④ 조선에 조총이 보급된 뒤에도 원거리 무기인 활의 사용 비중은 여전히 높았다.
- ⑤ 조선·중국·일본에서는 조총의 도입으로 하위 신분의 군사적 비중이 높아졌다.

28. 위 글과 관련하여 <보기>를 참고 자료로 제시할 때, (가)~(다)에 적절한 자료를 바르게 제시한 것은? [3점]

<보 기>

ㄱ. 화포가 적에 대응하는 데에는 그 이익이 크니, 왜구나 야인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ㄴ. 기병은 평지에서 이롭고 보병은 험지에서 이롭습니다. 우리나라는 구릉이나 논이 많아 진실로 보병을 쓰는 것이 합당합니다.

ㄷ. 지방의 군사 제도는 지극히 허술하다. 수령의 휘하에 한 명의 군졸도 없으니 만약 급박한 일이 생겼을 경우 실로 방어할 도리가 없다.

ㄹ. 낭선은 가지를 다 자르지 않은 대나무에 창날을 꽂아 만들고, 당파는 작살을 개량해 만든다. 나이가 장성하고 얼굴이 크고 힘이 센 사람이 낭선을 다루고, 살기와 담력이 있는 자가 당파를 다룬다.

- | | (가) | (나) | (다) |
|---|-----|-----|-----|
| ① | ㄱ | ㄴ | ㄷ |
| ② | ㄱ | ㄴ | ㄷ |
| ③ | ㄴ | ㄷ | ㄱ |
| ④ | ㄴ | ㄷ | ㄴ |
| ⑤ | ㄷ | ㄴ | ㄴ |

29. (라)를 통해 추론한 당시 사람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관노 : 양민들이 담당하던 군역을 이제는 우리도 맡게 되었군.
- ② 양반 : 집안에서 부리는 종놈은 개인 재산인데, 군대에 끌고 가니 너무한걸.
- ③ 양민 : 호패를 늘 차야 하는 데다 이사할 때마다 신고해야 하니 귀찮네그려.
- ④ 지주 : 집집마다 내던 공물을 논밭의 면적에 따라 내도록 하니 우리만 불리해졌어.
- ⑤ 수령 : 백성들을 단속하는 업무가 늘었지만 고을의 재정 형편은 훨씬 나아지게 되었군.

30. ㉠을 표준 발음으로 읽을 때, <보기>의 ㉡, ㉢에 해당하는 변동 유형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1점]

<보 기>

• 음운 변동은 다음과 같이 유형화할 수 있다.

	변동 이전	변동 이후	
㉡	XaY	→	XbY (교체)
㉢	XY	→	XaY (첨가)
	XabY	→	XcY (축약)
	XaY	→	XY (탈락)
	XabY	→	XbaY (도치)

• ‘못한 ㉠ → [] → []’의 과정을 거쳐 발음된다.

- | ㉡ | ㉢ | ㉡ | ㉢ |
|-----|---|-----|---|
| ① a | c | ② a | d |
| ③ b | d | ④ b | e |
| ⑤ c | e | | |

[31~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점심을 먹은 후, 다시 돌부리를 부여잡기도 하며 5, 6리쯤 나아가 영랑재에 올랐다. 천봉만학의 기괴한 형상을 굽어보았다. 주요 형상을 조금 들어 이름 붙여 말하면 이리하다.

사람 모습을 한 것, 새 모습을 한 것, 짐승 모습을 한 것이 있었다. 사람 모습을 한 것은 앉은 듯 일어난 듯, ㉠우러러보는 듯 굽어보는 듯하여, 마치 장군이 군진(軍陣)을 정돈하자 백만 군졸이 창을 옆으로 비끼고 칼을 휘두르며 다투어 적진으로 내닫는 듯도 하고, 늙은 스님이 공(空)을 강론하자 수천의 중들이 가사를 어지러이 걸치고 급하게 참선에서 돌아오는 듯도 하다. 새 모습을 한 것은 나는 듯 쪼는 듯, 새끼 부르는 듯 꼬리 뒤채는 듯하여, 마치 ㉡기러기 무리가 날개를 가지런히 하여 행렬을 이루어 가을 하늘에 짐을 짊어 지은 듯도 하고, 짝 잃은 난(鸞)새가 외로운 그림자를 떨어뜨리면서 머뭇거리다가 거울 속으로 날아 들어가는 듯도 하다. 짐승 모습을 한 것은 웅크린 듯 엮드린 듯, 달리는 듯 누운 듯하여, ㉢양들이 흩어져 풀을 뜯다가 해가 저물어 내려오는 듯도 하고, 사슴들이 험한 곳을 달리다가 발을 헛디더 놀라 추락하는 듯도 하다.

지금 생각하면, 망고대와 만폭동에서 본 것은 모두 아이들의 장난같이 여겨진다.

영랑재에서 절정까지 4, 5십 리를 에두르고 비스듬히 가는 길에, 해송과 측백나무는 모두 바람을 싫어하여 줄기가 한 쪽으로 쏠리고, 서로 뒤엎혀 길고 열은 푸른빛을 띠었으며, 그 키가 서너 장(丈)쯤 되어 보였다. 사람이 그 위로 걸어나니 마치 ㉣풀로 엮은 다리 위를 걷는 듯했다. 승려 지능이 발을 헛디더 4, 5십 보를 굴렀지만 떨어지지 않는 않았다.

또 4, 5백 보를 걸어 비로봉에 올랐다. 사방을 빙 둘러보니, 넓고도 아스라하여 그 끝을 알지 못할 정도였다.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이 마치 학을 타고 하늘 위로 오르는 듯하여, 나는 새라도 내 위로는 솟구치지 못할 것 같았다.

[A] 이날 천지가 맑고 개어 사방으로 작은 구름 한 점도 없었다. 나는 승려 성정에게 말하였다.

“물을 보면 반드시 원류(源流)까지 궁구해야 하고 산에 오르면 반드시 가장 높이 올라야 한다고 했으니, 요령(要領)*이 없을 수 없겠지요. 산천의 구분과 경계를 하나하나 가리킬 수 있겠습니까?”

성정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두루 보여 주었다.

- 홍인우, 「관동록」 -

* 요령: 가장 중요하고 으뜸이 되는 골자나 줄거리.

(나) 쇼향노 대향노 눈 아래 구버보고,
 정양스 **진혈디** 고타 올라 안즌마리,
 녀산(廬山) 진면목이 여기야 다 뵈는다.
 어와 조화옹이 현스토 현스홀샤.
 늘거든 쉼디 마나 셋거든 솟디 마나.
 ㉠ 부용(芙蓉)을 고갓는 듯 백옥(白玉)을 못것는 듯,
 동명(東溟)을 박츠는 듯 북극(北極)을 괴왓는 듯.
 늣홀시고 망고더 외로올샤 혈망봉이
 하늘의 추미러 므스 일을 스로리라,
 천만 겁 디나드록 구필 줄 모르는다.
 어와 너여이고 너 ㄱㅌ니 또 잇는가.
기심디 고타 올라 등향성 바라보며,
 만 이천 봉을 녀넉히 혀여하니,
 봉마다 밋쳐 잇고 굿마다 서린 기운,
 몹거든 조터 마나 조커든 몹디 마나.
 더 기운 호터 내야 인걸을 문돌고쟈.
 형용도 그지업고 테세(體勢)도 하도 할샤.
 텃디(天地) 삼기실 제 즈연이 되연마는,
 이제 와 보게 되니 유정도 유정홀샤.
 비로봉 상상두의 올라 보니 괴 뉘신고.
 동산 태산이 어느냐 늣뎡던고.
 노국(魯國) 조븐 줄도 우리는 모르거든,
 [B] 넘거나 넘은 텃하 잇씨혀야 적닷 말고.
 어와 더 디위를 어이하면 알 거이고.
 오르디 못혀거니 느려가미 고이홀가.
 - 정철, 「관동별곡」 -

(다) 금강 일만 이천 봉이 눈 아니면 옥이로다
혈성루 올라가니 천상인(天上人) 되었어라
 아마도 서부진 화부득*은 금강인가 하노라
 - 안민영 -
 * 서부진 화부득(書不盡畫不得): 글로 다 써 낼 수 없고 그림으로
 다 그려 낼 수 없음.

31.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감각적인 언어로 대상을 생동감 있게 그려 내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여행 도중의 감상과 글로 표현할 때의 감상을 구별하며 서술하고 있다.
 - ③ (가)와 (다)는 물음을 통해 대상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고 있다.
 - ④ (나)와 (다)는 단정적 어조로 대상에 대한 주관적 정서를 강화하고 있다.
 - ⑤ (나)와 (다)는 사물의 특징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여 묘사하고 있다.

32. ㉠~㉣ 중, 표현하는 대상의 성격이 다른 하나는? [1점]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33. (가)~(다)를 바탕으로 금강산 답사를 계획하였다. (가)~(다)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은?
- ① '영랑재'에서 산봉우리와 골짜기를 굽어보며 그것들이 이루는 다양한 형상을 확인해 본다.
 - ② '영랑재에서 절정까지' 오르는 길에 해송과 측백나무의 모양새를 확인해 본다.
 - ③ '진혈디'에서 '녀산' 쪽을 바라보며 변화무쌍한 경치를 즐겨 본다.
 - ④ '기심디'에서 '등향성' 쪽으로 조망하며 금강산 일만 이천 봉의 형상이 빚어내는 다양한 기운을 느껴 본다.
 - ⑤ '혈성루'에서 금강산을 바라보며 신선이 되는 느낌을 가져 본다.

34. [A], [B]에 나타난 서술자(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높은 곳에 오르는 행위를 사물의 근원을 탐색하는 과정으로 여기고 있다.
 - ② [B]: '비로봉'에 오르는 행위의 의미를 성인의 체험에 빗대어 생각하고 있다.
 - ③ [A]와 [B]: 현실에서 부딪힌 문제를 자연 속에서 해결하고 있다.
 - ④ [A]와 [B]: 자신의 여행 체험에 대해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 ⑤ [A]와 [B]: 자신의 시야를 넘어서는 세계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있다.

35. (다)를 <보기 2>와 같이 읽는다고 할 때, <보기 1>의 ㉠와 같은 속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은?

—<보기 1>—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 전봇대가 일정한 간격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된다. 이러한 반복에 익숙해지면 우리는 거기에서 리듬감을 느끼고, 그 리듬의 틀이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그래서 간혹 전봇대 하나가 안 보이더라도 하면 허전한 느낌이 드는 것이다. 또 전봇대가 촘촘히 나타나면 급한 느낌이 든다. 그러다가 다시 ㉠ 원래의 간격을 회복하면 기대감이 충족되어 편안함을 느낀다.

—<보기 2>—
 || 금 | 강 | 일 | 만 || 이 | 천 | 봉 | 이 || 눈 | 아 | 니 | 면 || 옥 | 이 | 로 | 다 ||
 ①
 || 혈 | 성 | 루 | || 올 | 라 | 가 | 니 || 천 | 상 | 인 | || 되 | 었 | 어 | 라 ||
 ② ③
 || 아 | 마 | 도 | || 서 | 부 | 진 | 화 | 부 | 득 || 은 | 금 | 강 | 인 | 가 || 하 | 노 | 라 | ||
 ④ ⑤
 * || || : 한 음보의 길이

[36~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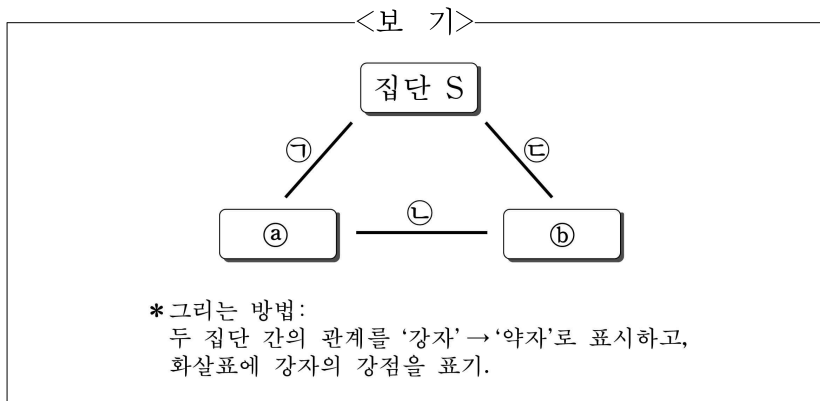
가위, 바위, 보! 무엇을 내느냐에 따라 서로의 승패는 확연히 갈리지만 이 게임의 묘미는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다는 데 있다. 이렇게 서로 끝없이 물고 물리는 가위바위보의 관계가 생물 다양성을 설명하기 위한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연구가 있어 눈길을 끈다.

[A] 한 연구팀은 동물의 장내에 서식하는 대장균 중 서로 다른 세 집단 간의 증식 경쟁에서 가위바위보의 관계를 관찰했다. ‘집단 C’는 콜리신이라는 독소를 생산하고, ‘집단 S’는 다른 집단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식하지만 콜리신에 의해 증식이 억제된다. ‘집단 R’은 ‘집단 C’보다 빠르고 ‘집단 S’보다 느린 증식 속도를 가진 반면 콜리신에 저항성을 지닌다. 세 집단 중 두 집단씩을 각각 섞어 배양하면 증식 속도의 차이로 인해 집단 간 증식 경쟁에 따른 승패가 확실하다. 반면 세 집단을 서로 인접시켜 배양하면, 각 두 집단 간의 경계에서는 일방적으로 영역을 침범하는 현상이 나타나지만, 결과적으로 가위바위보의 관계처럼 서로 물고 물리는 삼자 간의 공존 관계가 관찰된다.

다른 연구팀은 생쥐들의 장내에 세 대장균 집단을 투여한 후 각 집단 간의 증식 경쟁을 살폈다. 그 결과 한 시점에는 생쥐 개체별로 어느 한 집단이 우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세한 집단이 일정한 순서로 계속 바뀌는 것을 발견했다. 이는 서로 격리된 여러 공간에서 세 집단이 동시에 우세 집단으로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위 사례는 생태계에서 절대 강자가 없을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로 거론된다. 생물 간 경쟁을 설명하는 방식 중 승패가 명확한 양자 간의 관계에 비해, 삼자의 병존 가능성을 보여주는 가위바위보의 관계는 생물 다양성의 설명에 보다 적합한 모델이 될 수 있다.

36. [A]의 내용을 <보기>와 같이 그렸을 때, ㉠~㉣과 ㉠, ㉡에 들어갈 내용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3점]



	화살표의 방향 설정	강점	집단
①	모두 시계 방향	㉠: 콜리신 생산	㉡: 집단 R
②	모두 시계 방향	㉠: 증식 속도	㉡: 집단 C
③	모두 시계 방향	㉢: 저항성 및 증식 속도	㉢: 집단 R
④	모두 반시계 방향	㉢: 콜리신 생산	㉢: 집단 C
⑤	모두 반시계 방향	㉢: 증식 속도	㉢: 집단 C

37. 위 글의 대장균에 대한 실험 결과를 검토하여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장균 세 집단을 동일한 비율로 섞어서 배양한다면, 콜리신을 생산하는 집단이 가장 먼저 우세하게 나타나는 집단이 되겠군.
- ② 독소의 생산에 따른 저항성 집단의 출현이 필연적이라면, 독소의 생산은 생물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겠군.
- ③ 생쥐 실험 내용이 다른 포유동물의 경우에도 적용된다면, 토끼 등을 이용해 동일한 실험을 반복하더라도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겠군.
- ④ 생쥐를 이용한 실험에서 생쥐의 수를 늘려 실험한다면, 각 대장균 집단의 우세가 균등하게 분포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군.
- ⑤ 생쥐 내장이란 격리된 공간에서 우세한 집단이 일정한 순서로 바뀐다면, 그 변화 순서는 가위바위보의 관계로부터 예측이 가능하겠군.

[38~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A] 언론 보도로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 피해를 구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민법은 명예 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해 손해 배상과 같은 금전적인 구제와 아울러 비금전적인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비금전적인 구제 방식의 하나가 ‘반론권’이다. 반론권은 언론의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문제가 된 언론 보도 내용 중 순수한 의견이 아닌 사실적 주장(사실에 관한 보도 내용)에 대해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지면이나 방송으로 반박할 수 있는 권리이다. 반론권은 일반적으로 반론 보도를 통해 실현되는데, 이는 정정 보도나 추후 보도와는 다르다. 정정 보도는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달라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는 것이며, 추후 보도는 형사상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보도된 당사자의 무혐의나 무죄 판결에 대한 내용을 보도해 주는 것이다.

반론권 제도는 세계적으로 약 30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반론권 제도는 의견에도 반론권을 적용하는 프랑스식 모델이 아닌 사실적 주장에 대해서만 반론권을 부여하는 독일식 모델을 따르고 있다. 우리나라 반론권 제도의 특징은 정부가 반론권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를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하여 행사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반론권 도입 당시 우리 정부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반론권 행사가 언론에는 신뢰도

하락과 같은 부담을 주지 않고, 개인에게는 신속히 피해를 구제 받을 기회를 주기 때문에 효율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언론사와 일부 학자들은 법정 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반론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언론의 편집 및 편성권을 침해하여 궁극적으로 언론 자유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반론권 존립 여부에 대해 판단하면서, 반론권은 잘못된 사실을 진실에 맞게 수정하는 권리가 아니라 피해를 입은 자가 문제가 되는 기사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게재하는 권리로서 합헌적인 구제 장치라고 보았다. 또한 대법원은 반론권 제도를 이른바 ㉠ 무기대등원칙(武器對等原則)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즉 사회적 강자인 언론을 대상으로 일반인이 동등한 공격과 방어를 할 수 있도록 균형 유지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정당하다는 것이다.

반론권 청구는 언론중재위원회 또는 법원에 할 수 있으며, 두 기관에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다. 이때 반론권은 해당 언론사의 잘못이나 기사 내용의 진실성 여부에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다. 언론 전문가들은 일부 학자들의 비판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관련된 분쟁은 법정 밖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반론권 제도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모두 ㉡ 만족할 수 있도록 중재의 합의율과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38. 위 글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1점]

- ① 외국의 사례를 열거하여 공통적인 논지를 도출한다.
- ② 일반인의 상식을 제시한 후 이를 논리적으로 비판한다.
- ③ 새로운 이론을 통해 기존의 주장을 반박하고 재해석한다.
- ④ 개념을 정의한 후 대립되는 주장을 소개하고 필자의 견해를 밝힌다.
- ⑤ 현상이나 사실을 설명한 뒤 필자의 생각과 반대되는 견해의 장단점을 분석한다.

39. 위 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 ① 반론권 제도는 프랑스에서 가장 먼저 도입하였다.
- ② 보도 내용이 진실한 경우에도 반론권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피해자는 반론 보도와 정정 보도를 동시에 청구할 수 있다.
- ④ 반론권은 개인은 물론이고 법인이나 단체, 조직도 행사할 수 있다.
- ⑤ 반론권은 문제가 된 보도와 같은 분량의 지면이나 방송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40. [A]에 근거하여 볼 때, 반론 보도문의 성격에 가장 잘 맞는 것은?

- ① 본지는 2008년 1월 1일자 3면에서 공무원 A 씨가 횡령 혐의로 체포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A 씨는 2009년 4월 20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음을 알려 드립니다.
- ② ○○ 연구소의 B 소장은 ‘경제 회복 당분간 어렵다’는 취지의 본지 인터뷰 기사 내용에 대해, 이는 인터뷰 내용 중 일부 대목만을 인용하여 ‘경기 부양에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자신의 견해를 확대 해석한 결과라고 밝혀 왔습니다.
- ③ C 기업은 해당 기업에서 제작한 핵심적 기계 장치의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본지의 보도로 인하여 많은 손해를 보았다고 전해 왔습니다.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기계 자체가 아닌 사용상의 문제인 것으로 드러나 관련 기업과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 ④ 본지는 D 병원장의 예를 들어 병원들이 보험료를 부풀려 신청한다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D 병원장은 기사에서 지적된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고 알려 왔으며, 확인 결과 기사의 D 병원장은 E 병원장의 오기(誤記)로 드러났음을 알려 드립니다.
- ⑤ 본지는 F 금융공사가 미국보다 비싼 학자금 대출 금리로 부당한 이익을 남긴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F 금융공사는 미국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는 학자금 대출 상품의 금리보다 자사의 금리가 더 낮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사실로 확인되었으므로 해당 내용을 수정합니다.

41. ㉠의 취지를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 ① 피의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② 모성 보호를 위해 산모에게 일정 기간 유급 휴가를 제공한다.
- ③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해 구청에서 무료로 놀이방을 운영한다.
- ④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⑤ 청소년 보호를 위해 정부에서 지상파 방송 광고에 대해 사전 심의를 실시한다.

42. 밑줄 친 단어 중, ㉡의 의미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 ① 선을 본 사람이 마음에 차지 않았다.
- ② 잇그제 비가 흡족히 와서 가뭄이 해소되었다.
- ③ 그는 자기 능력에 상당한 대우를 받고 기뻐했다.
- ④ 철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별로 달갑지 않았다.
- ⑤ 형의 말을 들은 삼촌의 얼굴이 그리 탐탁해 보이지 않는다.

[43~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아니리)

“제가 세상에 빨리 나가 간을 속히 가지고 오겠나이다.”
 용왕이 이 말을 듣더니,
 “여봐라 별주부야. ㉠ 토공을 모시고 세상을 나가 간을 주겨
 들랑 속히 가지고 오도록 하여라.”
 명을 내리노니 별주부 기가 막혀,
 (중머리)
 별주부가 울며 여쭙되,
 “토끼란 놈이 본시 간사하여 뱃속에 달린 간 아니 내고 보
 며는 조목금수(鳥木禽獸)라도 빈정거릴 터이요 맹획(孟獲)을
 칠종칠금(七縱七擒)*하던 제갈량의 재주 아니어든 한번 놓아
 보낸 토끼를 어찌 다시 구하리까. 당장에 배를 따 보아 간
 이 들었으면 좋으려니와 만일에 간이 없고 보면 소신의 구
 족(九族)을 멸하여 주옵고 소신을 능지처참하더라도 여한이
 없사오니 당장 따 보시오.”
 토끼가 기가 막혀,

“여봐라 이놈 별주부야. 야 이놈 몹쓸 놈야. 왕명이 지중
 커늘 내가 어이 기만하랴. 옛말을 내가 못 들었느냐. 하걸
 (夏桀) 학정으로 용봉*을 살해코 미구(未久)에 망국 되었
 으니 너도 이놈 내 배를 따 보아 간이 들었으면 좋으려만
 만일에 간이 없고 보면 불쌍한 나의 목숨이 너의 나라서
 원귀 되고 너의 용왕 백 년 살 것을 하루도 못 살 테요,
 너의 나라 만조백관 한낱한시에 모두 다 몰살시키리라.
 아나 옛다 배 갈라라. 똥밖에는 든 것 없다. 내 배를 갈
 라내 보아라.”

[A]

(아니리)
 “왜 이리 잔말이 심한고. 어서 빨리 나가도록 해라.”
 별주부가 하릴없이 토끼를 업고 세상을 나가는데 세상 경계가
 장히 좋던가 보더라.

(중략)

[중략 부분의 줄거리] 토끼는 육지에 당도하여 별주부를 따돌리고
 도망치지만 독수리에게 잡히는 신세가 된다.

(나) (중머리)

“아이고 아이고 어쩔거나 아이고 이를 어쩔거나. 나 죽기는
 싫지 않으나 수로 천 리 먼먼 길에 겨우겨우 얻어 온 것을
 무주공산(無主空山)에 던져 두고 입자 없이 죽게 되니 이
 아니 싫소이까.”
 (아니리)
 “아니 그게 무엇이란 말이냐.”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오라 이번에 제가 수궁엘 들어갔었
 지요.”
 “그래서.”
 “수궁엘 들어갔더니 용왕께서 ‘의사즙치’를 하나 주십니다.”

“아니 무엇, ‘의사즙치’라는 것이 무엇이냐.”
 “글쎄 그것이 이상스럽습니다. 꼭 퍼 놓고 보면 구멍이 한
 두서넛씩 뚫어졌죠.”
 “그래서.”
 “그 한 구멍을 딱 쳐서 ‘썩은 도야지 창자 나오너라.’ 하면
 그저 꾸역꾸역 나오고, 또 한 구멍을 툭 치고 ‘도야지 새끼
 나 개 창자나 나오너라.’ 하면 그저 꾸역꾸역 나오고, 또 한
 구멍을 툭 치며 ‘그 병아리 새끼들 나오너라.’ 하면 병아리가
 일천 오백 마리나 그저 꾸역꾸역 나오고, 무엇이든지 내 소
 원대로 나오는 그런 보물을 저기 저 무주공산에다가 던져
 두고 죽게 되니 그 아니 딱한 일이오.”
 “너 이놈 토끼야.”
 “네.”
 “네 목숨을 살려 줄 테니 그것 좀 날 줄래.”
 “아이고, 목숨만 살려 주시면 드리고 말고요.”
 “그럼 그것이 어데 있느냐.”
 “저기 있습니다.”
 “가자.”
 독수리란 놈이 토끼 대굴박을 소주병 들듯 탁 들고서 훨훨
 날아가더니,
 “여기냐.”
 “네.”
 바위 옆에다 툭 내려놓고,
 “어서 나 시장해 못 살겠다. 빨리 ‘의사즙치’ 좀 나오너라.”
 “장군님, 내 뒷발을 잡고 놓아 달라는 대로 좀 봐 주십시오.
 안에 들어가서 내어 올 테니.”
 토끼는 피가 많은 놈이라 앞발을 바위틈에다 쑥 허니 넣고,
 “장군님, 조금만 봐 주시오. 아, 닿을 만합니다. 조금만 더
 조금 조금 조금.”
 뒷발을 탁 차고 바위 속으로 쑥 들어가더니 느닷없이 시조
 반 장을 내졌다.
 “세월이 여류허여…….”
 “너 이놈 토끼야. 아, 내 시장해 죽겠는데 무엇이 그리 한가
 해 들어가서 시조를 부르고 앉았느냐. 어서 이리 가져오
 너라.”
 토끼가 호령을 하는데,
 “너 이놈 독술야. 내 발길 나가면 네 해골 터질 테니 어
 서 날아가거라.”
 [B] “너 이놈, 다시 안 나올라니.”
 “내가 늘그막에 출입할 수도 없고 집에서 손주나 봐 주고
 지나갈란다. 어서 잔말 말고 날아가거라. 이것이 바로 내
 가 살아났으니 ‘의사즙치’라 하는 것이다.”

- 작자 미상, 「수궁가」 -

* 칠종칠금: 마음대로 잡았다 놓아 주었다 함을 이르는 말.
 * 용봉: 중국 하나라의 신하로, 걸왕에게 간언하다 죽임을 당함.

43.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간의 이동을 통해 국면이 전환된다.
- ② 배경이 되는 시대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 ③ 창(唱)과 아니리가 교차하면서 갈등이 고조된다.
- ④ 의도적으로 고사(故事)를 오용하여 긴장감을 낳는다.
- ⑤ 비슷한 잘못을 반복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여 준다.

44. [A]와 [B]에 나타난 ‘토끼’의 말하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는 권력자에 기대어, [B]는 연륜을 내세워 상대를 설득하고 있다.
- ② [A]에는 절박함을 숨기려는 심리가, [B]에는 득의양양한 심리가 내재되어 있다.
- ③ [A]와 [B]는 모두 상황을 가정하며 상대에게 대응하고 있다.
- ④ [A]와 [B]는 모두 비속한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를 자극하고 있다.
- ⑤ [A]는 [B]와 달리, 드러난 청자뿐 아니라 작품 속의 다른 인물까지 청자로 상정하고 있다.

45. ㉠에 담긴 ‘용왕’의 생각을 가장 잘 드러낸 것은?

- ① 토끼가 말하는 것을 보니, 허장성세(虛張聲勢)가 대단하군.
- ② 토끼가 돌아올 때까지 수주대토(守株待兔)하듯 기다려야겠군.
- ③ 토끼가 이리 안하무인(眼下無人)이니 말로라도 대접하는 척해 주지.
- ④ 천려일실(千慮一失)이라는데, 토끼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해야겠어.
- ⑤ 자가당착(自家撞着)도 유분수지, 겨우 잡아 온 토끼를 놓아 주어야 하다니.

46. 위 글의 ‘의사중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독수리의 관심을 토끼에게서 돌리는 수단이 된다.
- ② 토끼는 획득 경로를 밝혀 신빙성을 높이고자 한다.
- ③ 독수리와 토끼가 상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 ④ 실재하지 않으면서, 실재하는 존재들에 영향을 끼친다.
- ⑤ 독수리와 토끼의 서로 다른 욕망이 만나는 지점이 된다.

[47~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반적으로 영화는 구체적인 대상을 재현하는 데에는 그 어떤 예술보다 강하지만, 대사나 자막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정신적인 의미를 표현하는 데 약하다. 그런데 영화의 출발이 시각 예술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언어적 요소에 의존하는 것은 영화 본연의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영화가 독자적인 예술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순수하게 시각적인 방식으로 추상적인 의미 표현에 이를 수 있어야 한다.

에이젠슈테인은 여기서 한자의 구성 원리에 주목한다. 한자의 육서(六書) 중 그가 주목한 것은 상형 문자와 회의 문자다. 상형 문자는 사물의 형태를 본뜬 문자다. 그러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형태를 본떠서 재현할 수 있지만,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재현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휴식’과 같이 추상적인 개념은 상형 문자로 표현할 수 없다. 이때 이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 회의 문자다. 회의 문자 ‘설 휴(休)’는 ‘사람 인(人)’과 ‘나무 목(木)’이 결합된 문자다. 이 두 문자를 결합하면 ‘휴식’이라는 추상적 의미가 만들어진다. 하지만 ‘휴식’이란 말의 의미는 ‘人’에도 ‘木’에도 들어 있지 않다. ㉠ 두 개의 문자가 결합되면서 두 문자의 단순한 총합이 아닌 새로운 차원이 열리며, 이를 통해 추상적인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에이젠슈테인이 회의 문자에서 주목한 지점이다.

이러한 원리가 영화의 시각적인 의미 표현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의 문자를 이루는 요소들이 상형 문자라는 점이다. 묘사적이고 단일하며 가치중립적인 상형 문자의 특성은 영화의 개별 장면(shot)들의 특성에 상응한다. 회의 문자를 이루는 각각의 문자는 따로 떼어 놓고 보면 사물이나 사실에 대응되지만, 그 조합은 개념에 대응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 영화의 개별 장면들은 사물이나 사실에 대응되지만, 이들을 특정하게 결합시키면 그 조합은 개념에 대응된다. 따라서 회의 문자의 구성 원리를 이용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묘사할 수 없는 것, 추상적인 것을 순수하게 시각적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개별 장면들의 시간적 병치를 통해서 이루어 낸 추상적 의미는 영화를 보는 관객의 머릿속에서만 존재한다. 따라서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진 영화를 보면서 거기에 담긴 의미를 구성해 내는 것은 관객의 몫으로 남게 된다.

47. 위 글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은?

- ① 영화는 구체적인 대상의 재현을 통해 독자적인 예술이 된다.
- ② 영화의 개별 장면과 회의 문자 사이에 구조적 유사성이 있다.
- ③ 영화의 정신적인 의미는 개별 장면들의 특성으로 환원될 수 있다.
- ④ 영화는 추상적인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언어적 요소를 풍부하게 이용해야 한다.
- ⑤ 영화 외의 영역에서도 영화가 독자적인 예술이 되기 위한 원리를 끌어낼 수 있다.

